

8. 환경

슬로베니아의 세계적 학자 지젝(Z i z e k) 은 환경을 언젠가 도래할 위험이라고 말했다. 우리 안에 있지만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우리가 자초한 내부의 위험, 그것이 바로 지젝이 말하는 실재(r e a l) 의 위험이다. 그의 말을 조금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다. 오늘 내가 아무렇지 않게 타고 다닌 자동차에서 배출된 매연이 조금씩 공기를 오염시킨다. 오염을 넘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인 오존층을 파괴한다. 시간이 흘러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이산화탄소층이 두꺼워 지구의 열이 높아진다. 결국, 인류는 자신이 저질렀던 무심한 행동들로 인해 곤란에 처하게 된다. “환경”은 미래의 재앙이지만 오늘의 오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영화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미국의 전부통령이었던 앨 고어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했다. 그가 하는 강의의 내용은 유머러스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주제였다. 앨 고어의 강의 내용은 지구 온난화. 그는 여러 가지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설득력 있게 경고한다. 경고는 그의 여러 말보다 몇몇 사진들에 의해 강렬한 인상으로 남는다. 가령, 어느새 물줄기 정도로 축소된 알프스 빙하나 거의 사막이 되어버리고 만 호수 사진들 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변해가는 지구의 사진들, 얼음을 찾아 헤엄치다가 익사하고 마는 북극곰 시뮬레이션은 관중들을 환경 문제의 주체로 초대한다.

앨 고어의 강의 내용은 「불편한 진실, 2006」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각색된다. 영화는 앨 고어의 강의 내용 대부분과 중간 중간 그의 과거사와 고백적 심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큐멘터리라는 「불편한 진실」의 형식은 이 영화가 연설가의 역할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큐멘터리는 영화가 할 수 있을 극화와 허구화를 최소화한 양식이다. 되도록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며, 카메라의 시선은 감독의 판단을 대신한다. 물론 다큐멘터리라고 할지라도 카메라에 담는 이상 누군가의 견해에 가까워진다.

논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작품이 매우 정치적인 영화라는 사실이다. “정치적”이라는 수식은 앨 고어가 실제의 행정적 변화와 법적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앨 고어는 환경문제가 개인의 양심이나 추상적 위기의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에린 브로코비치, 2000」는 실제의 사건을 소재로 삼은 극영화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영화가 실제의 사건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아이 셋을 키우는 싱글맘 에린은 어느 날 우연히 사무실 구석에 버려진 서류봉지를 발견한다. 토지 보상 소송 서류에 끼워진 의료 문서를 이상하게 여긴 에린은 그 연관성을 찾아 직접 나선다. 사소한 민사 소송으로 알고 있던 문제는 알고 보니 대기업의 중금속 방출 문제의 일부로 드러난다. 이제 소송은 공장 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대기업의 진실 공방전으로 확대된다.

영화는 에린의 성공으로 귀결된다. 실제 사건에서처럼 에린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기업의 비리를 캐낸다. 「에린 브로코비치」가 실제 사건에서 추출한 영화적 측면은 바로 에린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영화는 남의 일이지만 참견하는 아줌마 근성, 공식적으로 딱딱하게 접근한다기 보다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모성을 주목한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환경 문제의 해결이란 이웃에 대한 개인의 소소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미약한 개인의 힘과 관심이 모였을 때,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대기업의 잘못은 규명되고 환경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또 다른 접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투모로우」에서 보여주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효과일 것이다. 공학적으로 설계된 가상현실 프로그램처럼 영화 「투모로우」는 지구 온난화가 초래하게 될 위험에 대한 시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시뮬레이션으로 인해 관객들은 “환경”이라는 만성적 공포를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현재의 문제로 체감하게 되었다. 환경이 초래할 공포를 사실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선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환경은 인류와 공생하고 있다. 우리가 한 만큼 환경은 고스란히 되돌려준다. 남용했다면 남용의 댓가를, 보호하고 가꿨다면 또 그 노력에 보상을 해준다. 지구는 단순히 화학성분으로 분해되는 기계가 아니라 인체와 같은 유기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몸을 함부로 대하면 어딘가가 문제가 생기듯 지구 역시 고장 날 수 있다. 영화는 이 불균형이 초래하는 위험을 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훌륭한 매체임에 분명하다. 소재로서의 환경 그리고 주제로서의 환경, 영화는 환경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목하고 있다.

2) 환경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태도

고대로부터 사회적 어른은 기후에 대한 해석을 감당해야만 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공포를 느꼈고 그때마다 사회적 지도자는 자연 현상의 변화 가운데서 은유를 읽어냈다. 그 독법은 불안한 사람을 위로하기도 했고 간혹은 오만한 권력에 대한 경고가 되기도 했다.

바야흐로 21세기인 지금, 급격한 기후 변화를 종교적 혹은 샤머니즘적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 수치와 통계를 근거로 했을 때 지구 온난화가 최근 기후 변화의 유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그래프의 경사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일 테다. 수식어가 무색하리만치 최근의 기후 변동이나 변화는 급격하다.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이해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의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오만에 불과했다고 말해 준다. 기상 예보가 있다고는 하지만 예측이 빗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생각해 보면 이런 기후 변화는 수세기 전부터 예상되었던 바라고 할 수 있다. 윈스턴 처칠은 20세기를 일컬어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일의 결과를 보게 될 세기라고 말한 바 있다. 정신분석학자 슬라보이 지젝은 환경문제를 재앙의 씨앗이 될 혼돈의 유인자라 부르기도 했다. 혼돈의 유인자라는 말도 우리가 저지른 일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처칠의 말과 유사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최근 기후의 역습은 인류가 저질렀던 수많은 원인 행동의 결과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앨 고어는 「불편한 진실, 2006」에서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소개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베이비붐이 일어나고 당시 세계인구는 23억 명에 달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 2005년 세계인구는 65억 명이 되었고 이 정도 추세라면 2050년이면 91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인구 23억 명이 되는 데 기원 이후 1900년이나 흘렀지만 3배가 되는 데에는 고작 100년이 걸리지 않는다. 앨 고어는 지나치게 급증한 인구수를 지구 온난화의 첫 번째 주범으로 꼽는다. 이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이들이 2차적으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외투를 두껍게 만들고 온기를 가둔다는 가설이다.

돌이켜보면 지구라는 유기체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시켰다고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콜레라나 페스트와 같은 질병은 인구수가 급증했을 때 발병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인간에게는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질병이나 전쟁이 지구 입장에서 보자면 항상성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봄이면 생명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사그라지듯 인간의 삶과 죽음도 지구의 입장에서 보자면 호흡처럼 자연스러운지 모른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 덕분에 인류는 유행병의 고난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국지전은 있지만 전쟁과 같은 대량살상도 없다. 역설적이게도 지구는 지진해일(쓰나미)이나 태풍, 폭염, 폭한, 폭우 등의 다른 재앙을 주었다. 인류가 오래전 정복했다고 믿은 기후는 예측 불가능한 재앙의 형태로 인류를 엄습한다. 기후는 우리가 지금껏 학습하고 대비한 인류의 지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인류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구의 돌변은 일종의 문명적 퇴행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사태 앞에서 마치 기원전 비문명인처럼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연스러운 열평형 회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라는 유기체는 결국 항상성을 찾아갈 것이다.

중요한 점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이다. 많은 사람이 기후 변화를 걱정하지만 대개 화젯거리일 경우가 많다. 그저 오랜만에 만나 나눌 말이 없을 때 이상한 기후는 좋은 대화거리가 되어 준다. 누구나 다 기후를 걱정하는 듯하지만 사실 아무도 기후 변화를 진심으로 걱정하지는 않는다.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했다. 비가 잦고, 태풍이 무서웠다면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상 그 경고를 해석하려는 사람은 드물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법이다. 결과를 마주하는 세대로서 필요한 것은 호들갑이 아니라 변화이다. 담담히 변화할 것, 어쩌면 이야말로 기후 변화의 메시지일지 모른다.

더 생각해 볼 문제

1) 환경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다룬 작품들을 찾아보자. 「매트릭스」, 「터미네이터」와 같은 S.F 영화가 주목하는 재앙의 원인들로 환경이 제시된 경우도 있다.

2) 환경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해서 논해보자. 과연 정치적 올바름은 어떤 식으로 환경 문제와 연관될까?

3) 환경 문제가 영화에서 볼거리로 제시될 경우의 위험에 대해서 논해보자.

9. 역사와 사실

1) 사실과 해석

티브이 드라마와 영화계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채택하느라 한창이다. 몇몇 귀에 익은 작품들만 떠올려도, { 주몽, 2006 }, { 연개소문, 2006 }, { 대조영, 2006 }, { 오래된 정원, 2006 }, { 화려한 휴가, 2007 } 등등 다양하다. 드라마와 영화가 창작된 이래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은 늘 있어왔지만 최근처럼 집중적으로 조형된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와 드라마의 효과와 부작용은 어떤 것일까? 과연 역사를 소재로 한 영상 제작물들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소견을 구체적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시해 보자.

2006년 이후 티브이 드라마 시청률 순위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티브이 드라마가 시청률 순위의 상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티브이 드라마 즉 사극이 인기 순위 상위에 머물렀던 것은 비단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사극의 주인공들이 과거 사극의 인물들과 그 면면이 다르다는 점이다.

과거 티브이 사극의 주인공은 대개 조선 왕조의 왕이거나 그와 관련된 내명부 여성들이었다. '사도 세자', '장희빈', '연산군'과 같은 인물들 말이다. 변화는 2004년 제작, 방영된 { 불멸의 이순신 } 에서 비롯된다. 김 훈의 { 칼의 노래 } 를 원작으로 삼고 있는 이 작품은 왕조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던 사극을 "이순신"이라는 군신 중심의 역사로 재창조해냈다. 김 훈의 원작이 이순신이라는 이름 아래 은닉되었던 한 남자의 내면을 끌어냈다면 티브이 드라마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준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 주몽} 역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새로운 서사적 소재로 차용하는 신선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서사라는 창조적 이야기 형태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역사 드라마 혹은 영화라 할지라도 기록된 실제 인물과 사건을 그럴 때에는 반드시 고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유념해야 할 점은, 고증이 곧 역사의 현재적 재해석 혹은 허구적 재창조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대로, 최근 티브이 드라마는 역사를 단순히 흥미위주의 소재로 무분별하게 차용한 혐의가 짙다. 역사가 티브이 드라마로 활용되고 있는 까닭이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와 화려한 전투신, 인물들의 다양한 갈등”이라는 분석은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준다.

사태의 심각성은 기록된 인물의 이름과 티브이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티브 속의 역사적 재현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위험에서 증폭된다.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서사물들이 오히려 역사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영화계에서 시도되고 있는 현대 역사에 대한 재해석의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테면, 황석영의 소설 { 오래된 정원}을 원작으로 각색된 영화 { 오래된 정원}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독재, 광주, 학생 운동과 같은 용어들은 허구적 두 인물의 삶 속에 융해되어 1980년대적 삶을 입체적으로 조형해내는 데 소용된다. 이러한 재창조의 노력은 이창동 감독의 { 박하사탕}이나 최근 제작중인 { 화려한 휴가}와 같은 작품에서도 엿보인다.

요컨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현대적 서사로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나름의 판단과 재해석이 필요하다. 역사적 소재를 현재 대면한다는 것은 그것을 차용한 자의 재해석과 판단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역사가 오래된 미래일 수 있는 까닭은 그것에 삶의 원리와 이치에 대한 암시가 침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써먹는 것과 역사에 대한 재창조와 해석은 분명히 구별되어야만 한다. 역사적 사실이 단순히 눈요기를 위한 소재일 수는 없는 것이다.

2) 역사적 사건과 변용

「한반도, 2006」, 「신기전, 2008」, 「미인도, 2008」, 「왕의 남자, 2005」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 영화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른 시각에

서 재해석 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역사”는 실제 있었던 일을 지칭하기도 한다. 우리가 소위 “팩션”이라고 말하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허구물들이 바로 이런 영화들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을 든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거론한 영화들이 한국 영화 흥행 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들이라는 사실이다. 한국 영화 흥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작품들을 통해 몇 가지 주목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미인도, 2008」의 줄거리는 이렇다. 신윤복은 유복한 집안의 딸로 태어난다. 아버지 신한평은 도화원의 중심 세력이었는데 새로 즉위한 정조와 그의 총애를 받는 김홍도로 인해 권력에서 멀어지게 된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아 주기를 바란다. 문제는 아들에게는 미술적 재능이 없다는 것이다. 재능은 도화서가 될 수 없는 아이, 딸에게서 발견된다. 이에 신한평은 딸을 아들처럼 키워낸다. 영화 「미인도」의 핵심 줄거리는 바로 신윤복이 여자였을 수도 있다, 라는 가설에서 시작한다. 도화원의 도화서는 남자다, 신윤복은 남자다, 라는 역사적 사실 자체에 상상력을 도입한 것이다.

신윤복이 남자가 아닌 여자였을 것이라는 상상력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도화서들간의 경쟁구도로 확장된다. 이 구도에는 왕의 총애를 받는 새로운 세력 김홍도 그리고 왕의 총애를 잃게 된 구세력이라는 대결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왕의 남자」에서도 발견된다. 남사당 놀이패들이 왕의 관심을 받는다. 이는 단순히 왕의 취향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쟁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변주된다. 결국, 연산군 폐위와 깊숙이 연관된 사건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한국에서 흥행한 영화들은 “왕” 혹은 “국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괴물」이나 「신기전」은 국가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기전」은 허약한 국가였던 조선이 자체 개발의 무기를 통해 대국과 맞설 수 있었다, 라는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신기전”이라는 새로운 무기의 발명으로 대국과 상대할 만한 힘을 갖췄다는 것이다. 「신기전」은 이러저러한 기구가 있었다, 라는 역사의 한 구절에서 출발했다. 명나라와 조선의 갈등, 명나라라는 제국에 대항한 구체적 서술은 사실 역사서에는 없다.

중요한 것은 영화 관객들이 한국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에 환호한다는 사실이다. 재해석은 대부분 한국의 저력과 위력을 설파하는 쪽인 경우가 많다. 동북공정과 같은 최근의 세계사적 이슈도 한몫했겠지만 사실상 한국 영화에 있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 “국가”라는 개념을 강화하고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던지는 쪽의 영화들이 계속해서 관객들의 환대를 받아온 것이다.

한국 영화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쉬리, 1999」도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경비구역 JSA, 2000」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역사와 국가라는 개념에 대한 재해석과 상상력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형상화된다는 것 일 테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역사적 상상력이 실존 인물의 삶에 대한 재해석인 점도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화 「미인도」는 도화원이라는 국가 제도의 일원이었던 도화서 신윤복이 아니라 인간 신윤복의 욕망과 예술에 대한 갈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으로서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그림의 세계에 진입했던 모습이 아니라 여성적 욕망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개인의 내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국가”, “제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고 음모론에 견뎌질만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던 팩션의 경향과 상당히 다르다.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는 사관과 해석자의 시선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아니라 아예 “역사” 자체를 상상으로 재조립할 수 있는 소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미인도」나 「바람의 화원」같은 서사물이 국가에 소속된 화원들의 삶을 그리면서 “신윤복이 여자였더라면”이라는 상상력만을 보여주는 것은 역설적 의미는 없을까? “국가”라는 강력한 힘은 지우고 근거가 희박한, 상상력으로 역사적 소재를 사용하는 것 말이다. 역사에 대한 재해석은 역사적 사실의 남용이라는 문제와 섬세하게 구분되어야만 한다.

3) 가해자의 역사와 피해자의 역사

(1) 억압된 역사 속 미시적 상상력

2007년 정가형제가 만든 영화 「기담」은 1930년대를 새롭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각광받았다. 그 동안 1930년대는 식민지 시대, 서구 열강 및 제국주의에 의한 억압의 시대로만 해석되어 왔다. 영화 「기담」은 1930년대의 정치적,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운다. 1930, 40년대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근대문물과 문명이 엄청난 속도로 유

입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1, 2 차 세계 대전을 다룬 작품들은 어떤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을까?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쥬들러 리스트」는 2 차 세계 대전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대대적인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던 당시, 쥬들러는 100 명의 유대인을 구하게 된다. 스티븐 스피버그가 재현한 2 차 세계대전은 끔찍한 학살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폭력과 광기의 공간이다. 스피버그는 그 험란한 전장에도 희망과 관용이 있었음을 영화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작품 「피아니스트」에서도 발견된다. 한 유대인 피아니스트가 홀로코스트를 피해 숨어 지낸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는 연주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고 마침내 살아 남는다. 끔찍하고 잔혹한 집단 학살보다도 위대한 인간의 힘, 로만 폴란스키는 피아니스트를 통해 인간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한다.

할리웃에서 제작된 영화들이 대부분 전쟁 속에서도 남아있는 휴머니즘에 주목했다면 아시아 영화의 시각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장예모 감독이 연출해서 베니스 영화제 작품상을 받기도 했던 「붉은 수수밭」은 이 차이를 잘 보여준다. 「붉은 수수밭」은 중국의 전통주라고 할 수 있을 고량주 도가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중국의 전통을 상징하는 붉은 수수밭에 일본의 힘이 미치고 그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작품에는 중국을 지배했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식민지 시대를 다루는 작품들은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내포할 수 밖에 없다. 최근 1930, 40 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정치, 역사에서 벗어나 미시적 삶의 지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런 점에서 반가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절을 겪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당시를 미시적 개인의 삶으로 다루기는 힘들었다. 가령, 한국의 최초 여성 비행사를 다루었던 영화 「청연」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다. 「청연」은 애초에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는 데 주목했던 작품이지만 필연적으로 그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한 친일 논쟁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여주인공의 친일 여부가 영화적 완성도나 성과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토론되기도 했다.

식민지와 제국주의를 다루는 작품들은 그 역사를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따져 봐야 한다. 율브린너가 주연을 맡았던 「안나와 왕(Anna & the King)」은 미국의 할리웃 시스템에서 제작된 뮤지컬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국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지배받지 않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다. 영화는 안나

라는 영국인 가정 교사를 문명인으로 그리고 태국의 지도자인 왕을 미개인의 입장에 두고 전개된다. 가정 교사와 왕 사이의 애뜻한 감정의 변화가 영화 전반의 이야기를 이끌지만 그 속에 내재된 제국 중심적 시각을 부인할 수는 없다.

최근에 개봉하는 많은 헐리웃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제국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아마겟돈」, 「인디펜던스 데이」, 「300」, 「트랜스포머」와 같은 영화들이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다. 헐리웃의 엄청난 자본력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작품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품들이 세계 곳곳에서 상영되며 사실상 21세기 가장 유효한 문화상품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영향들은 한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대형 영화들에서도 나타난다. 강우석 감독의 「한반도」나 심형래 감독의 「디 워」는 미국 영화의 제국주의를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한 작품이라고도 한다.

제국주의란 직접적인 영토를 획득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경제적 통제력을 얻어 세력이나 지배권을 확장시키려는 국가정책 또는 관행을 일컫는다.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주권을 유린하는 사전적 의미의 제국주의는 현실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제국주의 담론은 영화나 음악, 드라마, 문학과 같은 문화 가운데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 미시적 상상력을 통한 역사의 복원

2009년 아카데미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작품 「더 리더 - 책 읽어주는 남자」는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 단순히 이성간의 감정만이 녹아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는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역사적 사건도 함께 녹아 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은 사건들을 통해 당대를 기억하지만 영화는 한 개인의 삶으로 역사를 재구성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의 삶을 거쳐 역사를 재구성하는 영화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타이타닉, 1997」의 주인공이었던 케이트 윈슬렛이 여자 주인공을 맡은 영화 「더 리더 - 책 읽어주는 남자」는 얼핏 보면 소년의 성장영화처럼 보인다. 열 다섯 살인 소년은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소년은 여자에게서 새로운 삶의 한 부분을 배우게 되고 여자는 소년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소년은 호머의 「오디세이」나 「채털리 부인의 사랑」,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과 같은 책들을 읽어 준다. 소년은 그저 그녀가 자신이 책을 읽어 주는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문맹이라는 점, 사실 그녀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 하지만 문학에 대한 감수성만은 있기에 소년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는다.

문제는 세월이 지난 후 소년이 법대생으로 성장한 이후에 발생한다. 때는 2 차 세계 대전 직후, 전범처리 문제로 독일 전역이 시끄럽던 당시이다. 여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비원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첫사랑이었던 여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자, 소년은 당황한다. 사람들은 그녀가 당시의 책임자였으며 모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그녀는 읽고, 쓸 줄을 모른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아는 이가 다만 소년뿐이라는 사실이다. 우연히 재판을 살펴보기 위해 참석했기에, 그리고 이제는 그녀와의 첫사랑이 부끄럽게 여겨지기에 그는 이 사실을 모르는 체 한다. 그리고 자신이 문맹이라는 점을 끝까지 속이고 싶던 여자는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생활을 시작한다.

영화 「더 리더- 책 읽어 주는 남자」는 여자를 모르는 척 했던 남자의 죄책감과 역사의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간 여자의 삶을 중첩해서 보여준다. 소년과 성인 여성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역사의 질곡 한 가운데에 빨려 들어간 여성의 삶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버스 검표원이었던 여자는 사무직으로 발령나자 아우슈비츠로 직장을 옮겼다.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여자는 편안한 사무직을 버리고 경비원으로 취직했던 것이다. 그녀의 수치심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고통 될 지는 전혀 모른 채로 말이다.

베르톨루치 감독의 「마지막 황제」 역시 중국의 격변기를 살았던 한 남자, 푸이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영화의 뛰어난 점이라면 푸이라는 인물을 역사 속 황제라기보다는 무엇인가 결핍된 인간이자 역사적 조류에 휩쓸려 스쳐 지나가버린 힘없는 개인으로 그려냈다는 점이다. 거대한 중국의 황제로 태어나 시시한 남자로 죽어간 이 사람의 일생은 그대로 시간의 덧없음과 역사적 사건의 난폭함을 보여준다. 역사의 흐름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영화 작품들은 역사적 사건을 다큐멘터리와 같은 기록물로 남긴다기 보다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상상력으로 채워두곤 한다. 태어나 자라고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애는 어떤 시기와 맞물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 달라짐 자체가 인생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가령,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우리 나라의 여성들만 해도 그렇다. 박완서의 소설 「그 여자네 집」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하필 그 시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질곡 많은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존재한다. 정신대에 징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그로 인해 평탄한 삶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말이다.

역사는 일어난 사건들을 숫자와 기록으로 남긴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역사적 상황 한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직접 그러한 일들과 연루되지는 않는다. 「더 리더」나 「마지막 황제」와 같은 작품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역사적 사건과 직접 연루될 수밖에 없는 개인을 통해 역사의 난폭함을 그려낸다. 역사의 난폭함 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든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여자의 문맹을 모른 척한 소년처럼, 간혹은 직접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곁에서 있는 것이 더 큰 비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영화라는 매체의 힘은 아마도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 모두를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역사적 주체로 만들어 주는 경험에 있을 테다.

더 생각해볼 문제

1. 우리 영화사 혹은 문학사를 속에서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을 찾아보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본다. 위의 예시문은 역사를 오락의 소재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를테면,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2. 「피아니스트」같은 작품과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시각적 효과나 그에 따른 정서적 반응까지 여러 시각으로 비교해보자.

3. 역사와 역사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